

# 영암도기박물관, 박물관 문화체험 기지개 편다



영암도기박물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생활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5월부터 다채롭게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은 초보자 및 일반 관람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일체험 프로그램과 박물관 특별기획전 <무유도기, 불의 흔적> 전시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일일체험 프로그램은 1,20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초의 고화도 시유도기인 영암

## '무유도기, 불의 흔적' 전시연계프로그램 운영

### 영암 황토 이용한 일일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개

의 도기문화를 바탕으로 영암 황토를 이용한 도기체험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래성형으로 나만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손으로 빚기, 초벌 된 도기에 도자용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핸드페인팅, 손바닥을 찍어 액자를 완성하는 액자 만들기 등이 있다.

체험신청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일반 관람객들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현장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단, 단체는 사전신청을 통해 운영된다. 체험운영은 유료로 운영되며, 단체 20인 이상은 10%할인, 영암군민 중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는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유도기, 불의흔적> 전시연계프로그램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성인 단체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사전에 전화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연리문 필통 만들기'는 유약을 사용하지 않고, 태토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무유도기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체험할 수 있다. 무유도기의 원리를 깨닫고 이를 인공적으로 활용한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국내 최초 고화도 시유도기인 영암 도기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손소독, 실내마스크 착용,

실내 방역소독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영암도기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고화도 시유도기인 구립도기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국내 전통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김대환 기증전시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유약을 바르지 않고 높은 온도의 장작가마에서 장작이 타면서 날리는 재가 그릇 표면에 자연스럽게 녹아 반짝이는 유약의 신비함을 볼 수 있는 특별전 <무유도기, 불의 흔적>전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도기박물관 관계자는 "영암도기박물관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재개에 따라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마음에 위안을 얻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목포항구버스킹 참가자 모집

5월 9일까지 접수...모든 장르 가능

목포시가 '2022 목포 항구버스킹'에 참여할 거리공연팀을 오는 5월 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국악, 마술, 뮤지컬 등 장르에 제한이 없으며 공연팀에는 마이크와 랙 등 무대장비와 소정의 출연료 등이 지원된다.

참가자격은 공고일 현재 팀원 전체가 광주·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지정된 야외공간에서 30분 내외의 공연이 가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0a2007@korea.kr)로 접수하거나 목포문화관광 홈페이지(www.mokpo.go.kr/tour)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목포항구버스킹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예술인들에게는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일상에서의 문화향유를 통해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열정넘치는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 항구버스킹'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여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확대하기 위한 상설공연이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목포근대역사관 1관 입구, 삼학도 목포항구포차, 평화광장 등에서 매주 주말 '목포 항구버스킹'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 무안군, 어족자원 증대

### 위한 낙지 보호수면 운영

무안군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갯벌낙지 자원조성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탄도만 해역 4개소에 200ha 면적의 보호수면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07년부터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낙지 보호수면을 운영 중이며,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해 지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보호수면 지정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조업도 금지된다.

군은 보호수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면 기점과 안내판을 설치해 어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고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어로행위, 낚시어선 조업을 지도할 계획이다.

박홍양 해양수산과장은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무안 갯벌낙지 자원조성을 위해 낙지목장,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무안 갯벌낙지의 명성을 이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함평군, 공인중개사사무소 출입문 스티커 부착

###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부동산 근절

함평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출입문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 부착 대상은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28개소이며,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진,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다음 달부터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개사사무소 출입문에 부착된 스티커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신안군, 前 유엔세계관광기구 이사 정책고문 위촉

### 관광 콘텐츠 개발 적극 협력 약속

신안군은 지난 26일,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 관광 컨설턴트를 올란도 페르도모(Yolanda Perdomo) ICF 수석전략국장을 국제관광정책고문으로 위촉했다.

올란도 페르도모는 20년 이상 실무 경험을 보유한 관광 컨설팅 전문가로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관광차관 및 관광위원회 CEO,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이사 등을 역임했고, 스페인 국립공공행정연수원에서 관광정책 프로그램 맡아 교육했다.

현재는 세계적 컨설팅 기업 ICF의 수석전략국장으로 관광전략 컨설팅을 이끌어가는 중이다.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의 조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신안군은 국제관광시장의 흐름을 읽고 우수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퍼플섬 유엔세계관광기구 최우수관광마을을 보유한 신안군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로컬푸드, 주민주도 관광, 환경보호 등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슈에 섬만의 특성을 살려 '섬 지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파트너가 꼭 필요했다. 30여 개국에서 국제 고문 및 컨설턴트로 활약하며 지속가능한 관광 방법론을 제시해 온 전문가를 신안군 국제관광정책고문으로 모시고 이런 문제를 의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든든하다"고 전했다.

올란도 페르도모는 위촉식 이후 기점·소악도 '12사도 순례자의 길', '퍼플섬' 등 세계적 관광 명소로 주목 받는 신안군 섬들을 둘러보았다. "신안군에 처음 와 보지만 음식, 풍광,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왔음이 놀랍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 관계자로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신안=기동취재본부

## 제15기 영광농업대학(시설원예반) 입학식 개최



영광군은 지난 22일, 농업기계교육관에서 교육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영광 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영광농업대학은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과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미래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마다 농업 여건과 농업인

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영광농업대학은 '시설원예반'으로 4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4시간씩 총 25회 100시간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이론·실습 교육, 현장학습,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해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시설원예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아졌다"며, "영광군은 농업인 수요에 맞는 정책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앞으로 다가올 농업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농업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기, 804명의 전문농업인을 배출하여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